

# 수피아여중·고 농구, 왕중왕전 동반우승



9일 열린 2022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한 수피아여중·고 선수단이 우승기를 들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피아여중·고 제공>

## 온양여중·수원여고 제압 12년 만에 동반우승 기념 수피아여중 임연서·수피아여고 고현지 대회 MVP

수피아여중과 수피아여고가 2022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수피아여중·고의 동반 우승은 2010년 추계대회 이후 12년만이다.

수피아여중은 9일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대회 여중부 결승에서 온양여중을 67-57(20-12 12-12 15-13 20-20)로 꺾고 우승했다.

수피아여중의 올시즌 4번째 전국대회 우승이다.

2022연맹회장기 전국중고농구대회와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77회 전국남녀중농구선수권대회를 휩쓴 여중부 최강팀 수피아여중의 기세는 왕중왕전까지 계속됐다.

주말리그 중부경북 호남 C권역에서 1

위를 하며 왕중왕전에 나선 수피아여중은 조별리그에서 2승을 거둬 8강에 올랐고, 효성중과 선일여중을 차례로 제압하며 결승에 올랐다.

온양여중과의 결승 역시 압도적이었

다. 1쿼터에서 8점을 리드한 수피아여중은 전반전까지 이 점수차를 유지했다. 3쿼터를 마치며 47-37을 만들더니 4쿼터 역시 20득점을 몰아넣으면서 10점차 승리를 확정지었다.

24득점 16리바운드 6어시스트로 공격을 리드한 임연서는 대회 최우수선수상과 득점상을 수상했다.

이선영 수피아여중 코치는 "3-4월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다가 5월부터 출전에 4관왕을 거뒀

다. 이렇게까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서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대회도 올해 마지막 대회인 만큼 기본만 하자는 생각으로 준비했는데 결과가 좋았다"고 밝혔다.

동생들의 활약에 언니들도 화답했다. 수피아여고가 2019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우승 이후 3년만에 전국대회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지난해 전국체전 준우승, 올해 3월 제59회 춘계 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 준우승 등 마지막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수피아여고는 왕중왕전에서 우승하며 10월 전국체전 금메달을 예약했다.

수피아여고는 이날 여고부 결승에서 수원여고에 81-73(20-15 23-17 12-24 26-17) 승리를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주말리그 중부 호남 C권역 2위를 해 왕중왕전에 참가한 수피아여고는 조별리그에서 2승1패로 4강에 올랐다.

4강에서는 온양여고를 90-73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 상대는 조별리그에서 패했던 수원여고. 하지만 수피아여고는 결승에서 짜릿한 설욕전을 펼치며 우승을 차지했다. 고현지가 24득점 12리바운드, 오현비가 20득점 9리바운드, 김유선이 17점 9리바운드, 조민하가 14득점 2리바운드로 활약하며 승리를 견인했다.

고현지는 대회 최우수선수상과 리바운드상을 받았다.

김명희 수피아여고 감독은 "최근 조민하와 고현지가 연령별 대표팀에 다녀오면서 전체 선수들이 손발을 맞춘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돼 우승까지는 기대하지 못했다. 그런데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우승까지 하게 됐다"고 선수들을 칭찬했다. 이어 "수원여고에 예선에서 졌는데 돌아보니 사소한 부분을 놓쳤다. 선수들에게 기본적인 것들만 하고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올해 수피아여중이 잘해서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우승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 광주체고 김가현, 세계청소년태권도 '금'

광주체고 김가현(2년)이 지난 2-7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소피아 2022 세계태권도연맹(WT) 청소년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55kg급에 출전한 김가현은 결승전에서 아타나시아 레폴리아(그리스)를 상대로 한수 위 기량을 선보이며 1라운드를 12-0으로 따낸 뒤 2라운드에서도 10-2로 이겨 라운드 점수 2-0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2019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세계유소년선수권대회 은메달, 요르단 암만에서 개최된 아시아유소년선수권대회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가현은 세 번째 국제대회 도전 끝에 마침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김재안 광주체고 교장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친 김가현의 우승은 학교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지역에 큰 자랑이며 한국태권도 명예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기량을



소피아 2022 세계태권도연맹(WT) 청소년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가현.

더욱 향상시켜 올림픽 등 큰 국제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11일부터 나흘간 KPGA 2022 코리안투어 여성종합건설 오픈이 열리는 사우스링스영암 전경. <전남도 제공>

## 내일부터 사우스링스영암서 KPGA 여성종합건설 오픈 열전

전남도는 9일 "11일부터 14일까지 사우스링스영암 골프장에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2022 코리안투어 '제4회 여성종합건설 오픈'이 열린다"고 밝혔다.

2021년 이 대회 우승자인 박상현을 비롯해 김민규·함정우·황준근·허인희 등 144명의 KPGA 프로골퍼가 참여하며 우승상금 1억4천만원 등 총상금 7억 원 규모다.

이번 대회는 나흘 간의 현장 열기가 텔레비전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도내 첫 무료 입장 가능한 유관종 KPGA 경기로 지역

골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암해남 기업도시 삼호지구 2019년 10월 사우스링스영암 골프장 45홀을 개장하고, 지난 3월 KPGA와 협약을 맺어 골프로연습장, 선수훈련소,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명품 관광레저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김차진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KPGA 대회가 오랜 만에 전남에서 개최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와 '전남관광 1억명, 해외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성공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스포츠클라이밍 동호인 '다모여라' 21일 목포시장배 전국대회 열린다

17일 오후 5시까지 접수...당일 현장 접수 불가

제9회 목포시장배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동호인대회가 오는 21일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목포시산악연맹, 전남도 산악연맹, 목포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목포시산악연맹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가 주관하며 전남도, 목포시, 전남산악연맹이 후원한다.

경기 종목은 난이도 경기로 참가 부문은 남·여 일반부(고등학생은 일반부 참가 가능), 남·여 장년부(남 50세 이상, 여 45세 이상), 남·여 학생부(중1-고3), 남·여 초등 고학년(초4-초6 재학생), 남·여 초등 저학년(초1-초3 재학생)이다.

경기 방식은 예선 플래시 오픈 방식, 결승 온사이트 방식(초등 저 톱로핑)이다. 경기 규정은 IFSC규정에 따른(사)대한산악연맹 스포츠클라이밍규정에 준한 전남도 또는 목포시산악연맹 자체 규정에 의한다.

출전 순서는 예선전은 당일 발표, 결승전은 예선전 성적의 역순이며 기타 각 부문 대회는 2라운드를 원칙으로 하되 참가 인원예 따라 3라운드로 진행할 수 있다.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동호인과 초·중·고·대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남·여 일반부(선수권대회 10위 이내 입상자는 출전 불가, 고등학생 일반부 출전 가능) 정상 시합을 할 수 없는 부

상, 질병 중인 선수는 선수 보호와 안전을 위해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 오후 5시까지이며 당일 현장 접수는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다음카페-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거나 방문·팩스(061-276-2012)-전자메일(ji224@naver.com)로 신청해야 한다.

참가비는 2만원(중식 제공)이며 신청 기간 이후 납부자는 접수 불가 처리로 납부된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산악연맹(061-273-8848), 목포시산악연맹 국제스포츠클라이밍(주총영 센터장 010-2626-7684), 목포시산악연맹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장영진 위원장 010-6617-0030)로 문의하면 된다.

주최 측은 "경기중 발생한 부상·사고에 대해 응급조치와 더불어 보험이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의 보상 범위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추가 보상하는 것은 없다"며 "참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 부상 등은 응급조치 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최 측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보험 약관에 의해 보상한다"며 "대회 미신청자거나 내리 참가 등 비정상적 참가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광주여대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하계 전지훈련중인 리듬체조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이 훈련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여대 제공>

## “국내 최고 시설...훈련 만족도 최고”

### 리듬체조 국가대표 후보선수단, 광주여대서 하계전训

#### 국제 규격 매트·12m높이 개별 연습장 등 훈련 여건 최적 '체조경기장 공공성 활용' 학교측 지원 올해로 5번째 방문

리듬체조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이 3년 만에 광주여대를 찾아 태극마크를 향한 꿈을 키웠다.

이경희 감독 등 선수단 13명은 지난달 22일부터 10일까지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하계 훈련을 실시했다.

2015, 2016, 2017, 2019년에 이어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이다.

이경희 감독은 "광주에서의 전지 훈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완벽한 시설을 갖춘 연습장에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어 올 때마다 선수·지도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며 "태극마크를 향한 선수들의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 모두 자부심을 갖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훈련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길러 준 것이 최대 성과"라고 강조했다.

리듬체조 훈련에 필요한 12m 높이의 개별 연습장과 워밍업 등 국제 규격 시설을 갖춘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은 2015년 하계유

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과 국내 최고의 시설로 리듬체조 전지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감독은 "선수들에게 최고의 시설에서 다양한 경기 감각을 익히고 배우는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된다면 청소년 팀, 꿈나무 팀도 이곳에서 훈련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이어 "최고의 시설을 갖춘 광주여대의 배려와 지원이 없었다면 전지훈련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올 때마다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고,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준 이선재 총장님에게 선수단을 대표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여대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

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2만 7천885㎡에 관람석 8천837석을 갖춘 광주지역 최대 규모의 문화체육 허브시설이다.

이번 리듬체조 후보 선수 전지훈련은 U대회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광주여대를 리듬체조 전지훈련 매카로 육성하자는 학교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한 몫 했다.

광주여대 관계자는 "리듬체조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의 전지훈련을 계기로 지역 리듬체조 선수들에게 선진 기술 견학과 원 포인트 레슨 등 새로운 경험과 기회 제공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이 체조경기장 본연의 공공성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